

논문 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황 여 정*

요약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인간관계, 가치관과 태도, 거주지 등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적성과 노동시장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결정을 하기 보다는 대학진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전공을 정하거나, 때로는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족한 정보와 확신에 의한 진로선택은 적성불일치로 인한 갈등 등 상당한 비효율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초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보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진로정보’의 획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들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한 ‘희망전공에 관한 결정여부’에는 성별, 남성보호자의 직업, 자아정체감 수준, 본인의 적성인지여부, 미래의 직업결정 여부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은 결정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음으로, 희망전공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와 관련하여 인지하고 있는 ‘진로정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가정 내 진로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학교의 진로지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습득에 있어서 학교 등 공적인 지원체계보다는 가정을 비롯한 개인적 자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진로지원체계를 개선·강화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특히 가정에서 양질의 진로지도를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진로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론

한 개인이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차후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인간관계, 가치관과 태도,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거주지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문승태·김연희, 2005). 따라서 진로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적성과 노동시장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 결정은 장래 노동시장에의 효과적인 입직과 안정적인 직장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김성환·전용석, 2005).

그런데 최근 보도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46%가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모르고 있고, 대학생의 25%는 진로를 잘못 선택해 재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일보, 2006). 또한 조사 대상 대학생 중 절반만이 자신의 전공 선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66%의 학생들은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바꾸고 싶은 이유에 대해 '성격이나 적성, 특기와 맞지 않아서(32%)'라는 응답이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26.6%)'라는 반응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세계일보, 2005). 또한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95%가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거나 대강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연구결과(정철영, 1998)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결정이 매우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변하는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기'에서 그러한 결정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그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유발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 학벌주의 풍토로 인해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가 진학지도에 매몰되어버린 교육현실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실 그간 우리의 학교교육은 직업세계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기 보다는 명망있는 대학과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업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었다. 특히 이러한 학력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진학이 진로결정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진로 탐색과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임용수, 1992).

그러나 학생들이 부족한 정보와 확신 그리고 적성과 같은 내적동기가 결여된 상태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으로 이행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가지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적성 불일치 등에 따라 첫 일자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노동이동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개인차원에서도 상당한 비효율을 발생시키지만,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이병희, 2002; 전용석 외 2003; 김성환 외 2004; 신희경·김우영, 2005).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

지, 또 보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진로정보’획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결정기제는 어떠한 지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차후 보다 나은 진로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에 관해 수행된 그간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진로에 대한 준비수준을 결정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진로결정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로와 관련된 수많은 변인들(자아개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 혹은 애착, 가정 내 진로교육,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성취 등)가운데, 특정 변인에만 집중하여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종합적인 논의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들이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방법론에서도 백분율 혹은 평균비교를 통해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들어 위계적 선형분석(HLM)이나 서열 probit 모형 등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는 풍부한 데 비해, 진로정보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더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관해 어느 정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 또 그러한 진로정보획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그에 관해 어느 정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획득수준을 결정하는 제 요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지에 관해 구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가 장래 직업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시기라는 점에서(황정규 외, 1989; 윤수진, 2002), 진학을 목전에 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그 준비수준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의 개념과 이론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이란 진로지도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직업가치관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

택하는 의사결정을 일컫는다. 본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한 집단 내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되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관해 비교적 초기에 수행된 연구들은 개인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진로미결정을 주축으로 연구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진로결정수준이라는 용어로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상태를 이해하고자 한다(Callanan & Greenhaus, 1992; Wanberg & Muchinsky, 1992; 안권순·한건환, 2002에서 재인용).

한편, 진로결정은 개인 발달과정의 하나로 해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다. 그러므로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는 대개 그 개인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 사회·문화적 배경 등과 같은 귀속적 요인보다는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요소 부족 등이 중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핍 요소의 보충을 강조한다(Crites, 198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에 관해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부단한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의 적성, 소질, 능력 등에 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이현림, 1994; Gati et al., 1996; Larson, Heppenr, Han & Dugan, 1988). 이 같은 진로결정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는 전공선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는 직업선택을 통해 구체화된다.

한편 진로정보는 이 같은 진로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진로정보는 노동시장의 경향, 고용탐색, 진로선택, 교육의 기회, 재정원조, 직업배치 등에 관한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진로정보는 개인을 위해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Fredrikon, 1982; 김충기, 1996)

진로결정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태동하였다. 직업심리학의 입장에서 개인의 진로의식의 발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어릴 때의 가정 경험, 자아개념, 인성의 발달, 심리적인 욕구나 동기의 실현 등을 중시하였으며, 동시에 그러한 개인적 요인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도 이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 등 의미있는 타자(他者)의 영향을 위시한 외부환경과 개인 간 상호작용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개인과 주위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그 결과로 개인의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사회학적 접근은 좀 더 거시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진로는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과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개인이 속한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개인적 요인보다 더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의 통제영역 바깥에 위치하는 사회구조라는 변인을 주된 진로 결정인자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사회계층 배경에 따른 진로사회화의 차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중 P. Willis와 같은 일부 급진론자들은 현실적으로 진로의 탐색이나 결정은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에게만 해당될 뿐,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에게는 별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자 계층 자녀들의 진로는 실제로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거나, 대부분 노동자 계층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적 한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임용수, 199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진로에 관한 정보수집과 의사결정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원적인 관점으로는 진로를 결정하고 그것을 개척해가는 과정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하여, 직업심리학이 중시하는 자아개념, 사회심리학적 관심의 영역인 의미있는 타자의 영향, 그리고 사회학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사회계층(부모의 학력 및 경제적 수준) 요인을 모두 포괄한 모형을 구축하여 진로결정 및 정보획득수준에 관한 기제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2.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진로에 대한 결정이나 선택은 어느 순간 찰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용단을 내려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이재창, 1986). 즉 합리적인 진로결정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정보수집, 준비과정을 통해 성숙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내적·외적 변인들이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는 진로결정이나 진로정보습득에 관한 제반 요인들을 크게 개인특성 변인, 가정 배경 변인, 학교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개인 특성 변인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개인 특성 변인들에는 성별, 연령, 학업성취, 자아개념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결정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Herr and Enderline, 1976; Rathburn, 1973; 김상혁, 2001; 김현옥, 1989; 권소희, 1996; 오송남, 2003; 윤희준·이재신, 1986; 이승중, 2003), 반대로 남학생이 더 높다는 결과(Achbe, 1982; 김경령, 2001)도 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Crites, 1973; 김관용, 1996; 김대연·강경찬, 1996; 이광자, 1998)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은데, 이에 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준비 혹은 성숙수준이 조기에 발달하게 되고, 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현실적이어서 직업에 대한 계획이나 관심이 빠르게 발달하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김현옥, 1989). 한편, Rathburn(1973)은 어린 시절에는 남·여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여학생이 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력이 제고된다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Achbe, 1982; Hansen and Ansell, 1971; Herr and Enderlein, 1976; Super and Overstreet, 1990; 김원중, 1984; 김현옥, 1989; 이효성, 2001; 정윤경, 2005에서

재인용). 이는 진로결정이 본래 발달론의 관점에 입각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inzberg(1951)는 초등학교 시기인 6세에서 11세까지는 직업선택의 문제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를 중시하는 환상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직업선택이나 진로결정의 문제에 대해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11세에서 17세까지는 개인의 흥미나 취미에 따라 직업선택을 하려는 경향을 갖으며, 점차 비현실적인 선택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관 등을 고려하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 연령이 증가하면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늘고 직업정보를 접할 기회에 보다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도 함께 발달하게 되며(김현옥, 1989), 나이가 많아질수록 누적되는 학교교육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동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로발달에 기여하게 된다는 견해(김원중, 1984)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재신(1986), 정채기(1990), 이광자(1998), 권소희(2000)는 학년 혹은 연령과 진로발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업성취와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양자간의 정적 관계를 지지하고 있지만, 관계가 없다거나 오히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의 진로발달도가 높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 일치된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먼저, Nicolas and Banducci(1974), Lowrence and Brown(1976), 김원선(1989), 김현옥(1989), 이종학(1994), 김용완(1991) 등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나 지적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일수록 진로관련 개념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icolas and Banducci(1974)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높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었는데, 특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하위직업보다 상위직업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상위직업보다 하위직업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김관용(1996)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인지수준이 더 높게 도출되었는 바,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그는 현재 일선학교의 진학지도가 개인의 흥미, 소질, 적성, 신체적 조건 등 다양한 요건보다는 성적에 따라서 계열 및 학교,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오히려 진학보다는 실업계로 진학해서 빨리 가계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높은 진로성숙수준을 견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성별, 연령,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 비해, 자아정체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로결정과 정적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나 결정수준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예언요인이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며, 반대로 자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및 낮은 확신성은 저조한 정체감으로 이어져 결국 진로미결정 및 정보부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Gordon, 1981; Salomone, 1982).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강중구(1986), 김관용(1996), 김원중(1984), 김현옥(1989), 이승국(1999), 정정은(1994), 유영미·문승태(2005) 등의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자아정체감은 진로에 대해 직접

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유영미·문승태(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부모지지, 친구지지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이 같은 사회적지지 변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32의 간접효과를 발휘케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정체감은 그 자체로도 직접적인 결정요인이지만, 동시에 다른 변인들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나. 가정 배경 변인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가정 배경 변인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있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김환식·류창열, 1993; 강경찬, 1997; 권소희, 2000; 김현옥, 1989; 이효정, 2001; 차재권, 1998; Winterowd and Krieshols, 1989). SES가 자녀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에 대해, 차재권(1998)은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업을 가진 보호자는 자녀들이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진로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설명하였으며, 문승태·김연희(2005)는 SES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27)은 직접효과(.14) 못지않은 간접효과(.13)에 대해 유발된다고 하였다. 즉, 그들에 의하면 SES는 부모와의 애착이나 자아정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현옥(1989)은 자녀의 진로발달과 가정의 SES는 단순한 선형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특히 가정의 소득수준이 중간계층인 학생들이 상층이나 하층에 비해 진로에 관한 준비가 보다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SES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출된 연구들도 상당히 많다(Goodale and Hall, 1976; Lee and King, 1964; Taylor, 1982; 김관용, 1996; 김원중, 1984; 박용관, 2003; 윤희준·이재신, 1986; 이승국, 1999; 정윤경,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직업관, 가치관, 진학관 등도 함께 변모하기 때문에 SES와 관련된 전통적인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승국, 1999)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직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SES가 양호한 아이들보다 진로에 관한 정보획득수준이나 결정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김관용, 1996)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진로결정에 대한 SES의 효과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데 비해,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수준도 높다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의 진로계획을 지원하는 가장 큰 잠재세력이다(Trusty and Watts, 1996). 따라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이 강하고 대화를 많이 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에 관

한 준비가 보다 잘 이루어지게 된다(김인혜, 1993; 이광자, 1998; 이효정, 2001, 정정은, 2004; 신희경·김우영, 2005). 한편 정윤경(2005)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일반적인 애착 관계 외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에 대한 대화나 탐색 또한 진로발달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진로결정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집단이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게 한다(Birch, 1998). 즉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보다 진취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적인 상호관계망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Burke, Bristor and Rothstein, 1995), 같은 맥락에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유능감을 인식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l et al., 1995, Dekovic and Meeus, 1997).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문승태·김연희(200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착과 어머니의 애착이 진로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적효과를 나타냈으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로 인해 총효과는 긍정적으로 도출됨을 밝힌 바 있다.

다. 학교 관련 변인

진로결정 또는 진로정보인지수준과 관련이 있는 학교 관련 변인들로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의 진로지도 등이 주로 거론된다.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전술한 사회적 지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목도된 것만큼 일치된, 강력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먼저 강경찬(1997)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에게는 교사가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준 반면, 친구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효정(2001)은 교사와의 친밀도와 상담을 받고 싶은 교사의 유무가 여학생의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이인자(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단의 연구자들은 진로발달에서 친구의 역할에 주목하였다(Niles, 1998; Hartup, 1992; Youniss and Haynie, 1992; Brown et al., 1993). 즉,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탐색과정에서 친구가 유용한 탐색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친구관계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행동 및 성향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개인의 진로에 있어 교우관계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유를 Young et al.(1999)은 부모-자녀 간의 위계적인 관계와는 달리 친구 간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 간의 의사소통의 특징에서 찾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적 견해를 찾을 수 있도록 탐색하고 질문하고

명료화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따라서 또래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흥미, 자기인식, 그리고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 개인의 진로 도식(scheme)을 설정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며, 결국 개인의 진로를 구성하는 발판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았다(이현주, 2001).

학교의 진로지도도 진로결정이나 정보수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풍부한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승중(2003), 송영숙(1998), 정정은(2004)의 연구는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정보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육에서 효과적인 진로지도는 사실상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OECD가 한국의 진로교육에 대해 진단한 바에 따르면, 초·중등 단계의 진로지도는 주로 대학진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진로지도는 대학입학, 구체적으로는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에 진학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특히 학교성적과 한 두 차례의 적성 및 흥미검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충분한 진로탐색이나 고민 없이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학교의 진로지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신,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기술적인 차원에만 급급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지연, 2005).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효정(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의 진로지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와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의 1차년도 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각각 2,000명씩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장기간 추적·조사함으로써, 청년층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착수되었다. 동 자료의 표본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 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한 후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 가운데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 모두 충실하게 응답한 1,172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배경변인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율(%)	계 (명, %)
성별	남학생	645	55.0	1,172 (100%)
	여학생	527	45.0	
거주지 규모	대도시	592	50.5	1,172 (100%)
	중소도시	409	34.9	
	읍면지역	171	14.6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247	21.1	1,172 (100%)
	201~350만원	499	42.6	
	351~500만원	288	24.6	
	500만원 이상	138	11.8	
아버지 학력수준	중졸 이하	145	12.4	1,172 (100%)
	고졸	596	50.9	
	전문대 및 일반대 졸	357	30.5	
	대학원 이상	74	6.3	
어머니 학력수준	중졸 이하	236	20.1	1,172 (100%)
	고졸	738	63.0	
	전문대 및 일반대 졸	186	15.9	
	대학원 이상	12	1.0	
남성 보호자 직업수준	상위 정신노동직	218	18.6	1,172 (100%)
	하위 정신노동직	278	23.7	
	상위 육체노동직	599	51.1	
	하위 육체노동직	77	6.6	

2. 변수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전공에 대한 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분야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전공에 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정보수준은 어떠한지, 그러한 정보인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술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가.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 및 연구모형

먼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전공을 선택하였는지 여부이며, 선택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 선택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이 부여되었다. 독립변수로는 1단계 모형에서는 학생의 성별(GENDER), 형제자매 유무(SIBLINGS), 계열(TRACK)이 포함되었다. 학생의 성별은 더미변수로서 남자이면 0, 여자

이면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형제자매의 유무 역시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형제자매가 없으면 0, 있으면 1의 값이 주어졌다. 재학중인 계열은 문과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이과인 경우와 예체능·직업반인 경우를 나누어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모형 2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착할 수 있는 변인들인 아버지 학력(FAEDU), 어머니 학력(MOEDU), 남성보호자의 직업(MJOB), 월평균 가계소득(INCOME)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원래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로 분류하여 조사되었던 것을 미취학·무학 0, 초졸 6, 중졸 9, 고졸 12, 2·3년제 대졸 14.5, 4년제 대졸 16, 석사 18, 박사 21의 값을 부여한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남성보호자의 직업 또한 본래 9단계로 세분하여 조사되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4단계로 재분류하여 상위정신노동직(고위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하위정신노동직(일반 기술직 및 사무직), 상위육체노동직(판매직 및 서비스직), 하위육체노동직(생산직 및 기능직)으로 나누어, 하위육체노동직을 준거집단으로 한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계소득은 지난 1년간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조사한 값을 사용하되, 편포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로그(natural log)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3단계 모형에서는 가정 내 문화자본(CULCPA), 사회자본(SOCCPT), 그리고 진로관련 활동 및 대화의 종류(HOMEJOB)가 추가되었다. 가정 내 문화자본은 가족과 함께 영화, 연극, 뮤지컬,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을 관람하고 여행, 등산, 낚시 등을 다닌 정도를 요인 분석을 통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요인점수를 연속변수로서 모형에 투입하였다. 사회자본 역시 마찬가지로 요인분석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친구, 친한 친구의 부모, 학교생활, 생활 습관, 현재의 개인적 고민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추출된 요인점수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가정 내 진로관련 활동 및 대화의 종류는 가정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선택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찾기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정에서 경험해 본 진로관련 활동 및 대화의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모형 4에는 학업성취(ACHIEVE), 자아정체감(SELF), 적성인지여부(APPTITD), 미래직업결정여부(JOBDCS), 재학 중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ARBEIT)이 투입되었다. 학업성취는 2005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에 모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영역의 표준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아정체감 변인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의 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점수로 사용하였다. 적성인지여부는 본인의 적성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에 1, 모른다고 답한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미래직업결정여부 역시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하면 1,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 5번째 모형에서는 학교의 진로지도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변인들로서 학교의 진로지도경험(SCHCAREER)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CARSATIS)가 추가되었다. 학교의 진로지도경험은 진로강연, 학교 및 학과안내, 진로관련 검사, 진로상담에 관해 각각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본래 전술한 강연, 학교 및 학과안내, 진로검사, 진로상담에 대해 각각 ‘전혀 만족 못함’에서 ‘매우 만족함’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해당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여 최소값 0부터 최대값 5까지의 분포를 갖도록 조정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상술한 변인들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계량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평균, 표준편차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GENDER] + \beta_2[SIBLINGS] + \beta_3[TRACK1] + \beta_4[TRACK2] + \beta_5[FAEDU] + \beta_6[MOEDU] + \beta_7[MJOB1] + \beta_8[MJOB2] + \beta_9[MJOB3] + \beta_{10}[INCOME] + \beta_{11}[CULCPT] + \beta_{12}[SOCCPT] + \beta_{13}[HOMEJOB] + \beta_{14}[ACHIEVE] + \beta_{15}[SELF] + \beta_{16}[APPTTD] + \beta_{17}[JOBDCS] + \beta_{18}[ARBEIT] + \beta_{19}[SCHCAREER1] + \beta_{20}[SCHCAREER2] + \beta_{21}[SCHCAREER3] + \beta_{22}[SCHCAREER4] + \beta_{23}[CARSATIS]$$

<표 2>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평균, 표준편차

변수	정 의	통계치
GENDER	더미변수; 학생의 성별이 여학생인 경우(=1)	.450 (.498)
SIBLINGS	더미변수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1)	.936 (.245)
TRACK1	더미변수 ; 현재 속해있는 계열이 이과인 경우(=1)	.427 (.495)
TRACK2	더미변수 ; 현재 속해있는 계열이 예체능 혹은 직업반인 경우(=1)	.033 (.180)
FAEDU	아버지의 교육수준(교육연한)	13.053 (2.822)
MOEDU	어머니의 교육수준(교육연한)	11.914 (2.401)
MJOB1	더미변수; 남성보호자의 직업이 상위 정신노동적인 경우(=1)	.186 (.389)
MJOB2	더미변수; 남성보호자의 직업이 하위 정신노동적인 경우(=1)	.237 (.425)
MJOB3	더미변수; 남성보호자의 직업이 상위 육체노동적인 경우(=1)	.511 (.500)
INCOME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소득(=natural log값)	5.753 (.484)
CULCPT	문화자본(요인분석 값)	.037 (.979)
SOCCPT	사회자본(요인분석 값)	.081 (.950)
HOMEJOB	가정 내 진로관련 활동 및 대화의 종류	3.322 (.949)
ACHIEVE	학업성취 (수능시험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점수의 합)	301.098 (44.560)
SELF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요인분석 값)	.011 (.990)
APPTTD	더미변수 ; 본인의 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1)	.699 (.459)
JOBDCS	더미변수 ; 미래의 직업을 결정한 경우(=1)	.714 (.452)
ARBEIT	더미변수 ; 재학 중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1)	.148 (.356)
SCHCAREER1	더미변수 ; 고교 재학 중 진로강연을 받은 경우(=1)	.386 (.487)
SCHCAREER2	더미변수 ; 고교 재학 중 학교 및 학과안내를 받은 경우(=1)	.499 (.500)
SCHCAREER3	더미변수 ; 고교 재학 중 진로관련 검사를 받은 경우(=1)	.863 (.344)
SCHCAREER4	더미변수 ; 고교 재학 중 진로상담을 받은 경우(=1)	.566 (.496)
CARSATIS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요인분석 값)	.049(.98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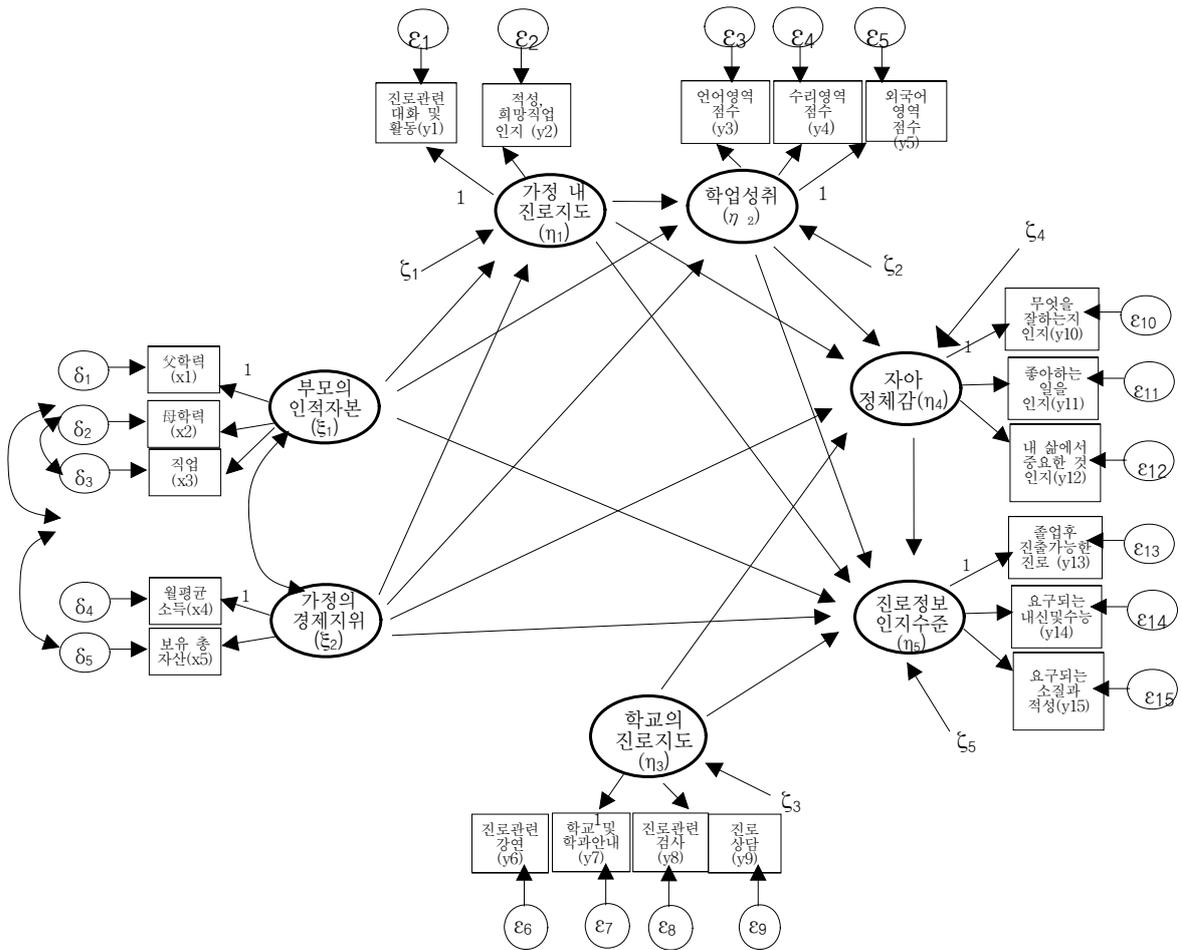
나. 구조방정식 모형에 사용된 변수 및 연구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후,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해당 분야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지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종 종속변인인 진로정보인지수준은 대학 진학 시 공부하고 싶은 전공에 대한 탐색수준을 측정하는 문항 3개(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요구되는 내신 및 수능점수 수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요구되는 소질과 능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진로정보인지수준에 영향을 주는 잠재요인들로는 가정 내 인적자본, 가정의 경제적지위, 가정 내 진로지도, 학교의 진로지도, 학업성취, 자아정체감이 설정되었다. 이들 잠재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투입한 측정변인들은 대체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과 유사한데, 가정 내 인적자본을 설명하는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은 위와 동일하며, 남성보호자의 직업은 로지스틱 모형에서 사용한 4단계 분류가 아닌, 본래 조사된 0부터 9까지의 10단계 분류로 투입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인 중 월평균 소득은 로지스틱 모형의 INCOME변수와 동일하며, 다만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는 월평균 소득 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액 및 금융자산 총액을 포함한 총자산을 측정변인에 추가하였다. 가정 내 진로지도 요인은 자녀가 졸업 후 갖게 될 직업, 자녀가 희망하는 전공, 자녀가 35살에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한 변인과 앞서 설명한 HOMEJOB변인, 이렇게 2가지로 구성하였다. 학업성취 요인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각각의 점수를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의 진로지도는 위에서 설명한 4개 영역에 대해 1부터 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만족도 문항을 다소 재구성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고 이들 4개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 요인은 로지스틱 모형에서 요인분석에 사용한 3개의 문항들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모형이 아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중, 먼저 본인의 진로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해당 요인들과 그 영향력의 정도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로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지수준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4.0 프로그램과 AMOS 6.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그림 1] 진로정보인지수준에 대한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진로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전공에 관한 선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성별, 형제자매 유무, 재학 중인 계열 등 학생들의 개인 배경만을 포함시켜 이러한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추정 결과, 1단계 모형에서 성별, 형제자매 유무는 전공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계열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여 문과 학생들에 비해 이과 학생들이 고3 중반까지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근래에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공계 기피 현상, 의

약계열 등 특정학과에 대한 이과 학생들의 집중 현상 등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전문직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의약계열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의약계열 진학은 소질이나 적성보다는 철저히 학업성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다수의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전공을 뚜렷이 정하지 못한 채, ‘점수가 잘 나오면 의대로 진학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과로 진학한다’는 입시전략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응답에도 다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SES 관련 변인들을 투입한 두 번째 모형에서는 계열(이과)의 효과가 외에, 어머니 학력이 미미하나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형									
	I		II		III		IV		V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별	-.267 (.146)	.766	-.269 (.148)	.764	-.323* (.151)	.724	-.461** (.178)	.630	-.446* (.179)	.640
형제자매 유무	-.257 (.316)	.773	-.209 (.320)	.812	-.209 (.322)	.812	-.147 (.371)	.863	-.162 (.373)	.850
계열(이과)	-.327* (.147)	.721	-.336* (.149)	.715	-.324* (.150)	.723	-.255 (.178)	.775	-.269 (.179)	.764
계열(예체능·직업)	.778 (.538)	2.178	.765 (.539)	2.149	.809 (.543)	2.245	-.126 (.595)	.882	-.222 (.600)	.801
아버지 학력수준			-.041 (.037)	.960	-.044 (.037)	.957	-.048 (.043)	.953	-.052 (.044)	.950
어머니 학력수준			.091* (.042)	1.095	.082 (.042)	1.085	.081 (.050)	1.084	.087 (.050)	1.091
상위정신노동직			.653 (.368)	1.921	.715 (.371)	2.044	1.003* (.435)	2.725	.991* (.440)	2.695
하위정신노동직			.110 (.319)	1.116	.173 (.322)	1.189	.431 (.382)	1.540	.449 (.385)	1.567
상위육체노동직			.266 (.285)	1.305	.287 (.287)	1.332	.477 (.339)	1.612	.487 (.342)	1.627
월평균 가계소득			.105 (.174)	1.111	.107 (.177)	1.113	.021 (.212)	1.022	.042 (.217)	1.043
가정 내 문화자본					-.045 (.078)	.956	-.042 (.093)	.959	-.078 (.095)	.925
가정 내 사회자본					.020 (.079)	1.020	-.026 (.093)	.074	-.032 (.096)	.969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및 활동					.286* (.072)	1.331	.126 (.085)	1.134	.143 (.089)	1.153
학업성취							.002 (.002)	1.002	.002 (.002)	1.002
자아정체감 수준							.262** (.099)	1.300	.228* (.106)	1.256
본인의 적성인지							.712*** (.196)	2.039	.788*** (.201)	2.200
미래의 직업결정유무							2.232*** (.177)	9.320	2.271*** (.180)	9.690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112 (.237)	.894	-.096 (.240)	.908
진로강연									.652 (.543)	1.920
학교 및 학과안내									.068 (.902)	1.070
진로관련검사									-.163 (.487)	.850
진로상담									-.025 (.484)	.976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									-.306 (.553)	.737
N	1,172		1,172		1,172		1,172		1,172	
-2log L	1226.144		1209.237		1192.815		902.272		892.670	
Model Chi-square	11.858*		28.765**		45.187***		335.730***		345.332***	
Overall percentage correct	77.9		77.9		77.6		83.7		84.0	

가정 내 분위기나 풍토 등을 반영하는 세 번째 모형에서는 I, II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던 성별의 효과가 검증되어,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 성향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Herr and Enderline, 1976; Rathburn, 1973; 김현옥, 1989)와 배치되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발달수준이나 직업에 대한 계획·관심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학생들이 진로결정을 더 잘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여학생들이 쉽게 전공을 선택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여건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대학졸업 후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전공선택에 있어서 소위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덜 작용하는 분야를 택하기 위해 부심할 개연성이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남학생들보다 전공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목도되었던 어머니 학력의 효과가 사라지고 새로 투입한 변인들 가운데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및 활동 변인의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어머니 학력수준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활동을 매개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일수록 자녀들과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진로탐색 활동도 더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로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다차원적인 인과관계는 뒷부분에서 이루어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자아정체감 수준, 적성인지여부, 미래의 직업결정여부,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추가된 네 번째 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성별의 효과는 그대로 잔존하였으나 계열과 가정 내 진로관련대화·활동의 효과가 사라지고, 기존의 변인 가운데 남성보호자의 직업이 상위정신노동직인 경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변인들 중에서는 자아정체감 수준, 본인의 적성인지여부, 미래의 직업결정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계열과 가정 내 진로지도가 4단계에서 새로 투입된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즉, 가정 내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면 그것이 자아정체감 수준이나 본인의 적성인지여부, 혹은 미래의 직업결정유무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경로를 거쳐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또는 이와 학생들이 상술한 문항들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문과 학생에 비해 진로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볼직 하다. 한편, 본인의 적성을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039배(=exp(.712)),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무려 9.320배(=exp(2.232)) 가량 진로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적성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직업상을 갖게 되면, 단순히 시험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진학할 확률이 크게 높아짐을 뜻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이 잘못된 전공선택으로 인해 갈등을 겪을 여지를 줄여주고, 대학교육을 통해 실제로 본인의 진로개발과 전문성 함양을 경험할 여지가 커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형에서는 네 번째 모형에 학교의 진로지도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였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강연, 학교 및 학과안내, 진로관련 검사, 진로상담 등의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공선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는 것 그 자체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정보인지수준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위에서 살펴본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보았다. 여기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전공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해당 분야로의 진학 및 직업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인지수준에 인과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 지, 그리고 관련된 변인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 대학진학을 앞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정보수준을 결정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결과가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이 제공하는 다양한 모형적합도 지수 중, 본 연구에 대한 χ^2 수치는 313.037($p=.00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그 신뢰성이 대단히 취약하므로 구조방정식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¹⁾. 본 연구에서는 RMSEA 0.034, NFI 0.932, CFI 0.963 등으로 도출되어, 설정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²⁾.

1)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χ^2 는 관측된 자료와 모델이 완전히 같다는 가설을 전제로 검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검정력을 높여가면 필연적으로 양자는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소규모 데이터에서는 관측 데이터와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측치와 모델의 아주 작은 차이도 민감하게 감지되어 결국 모델이 기각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스 수가 많은 자료에서는 카이제곱 값은 필연적으로 크게 도출된다(노형진, 2000).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구조방정식에서는 카이제곱 값 외에 다양한 모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RESEA는 사례수가 많을 때 카이제곱검정에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모수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모델에 의한 외견상의 적합도 상승을 조정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0.08이하이면 적합도가 높으며, 0.10이상이면 그 모델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0.034로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독립모델(관측변수 간 상관을 0으로 가정한 모델)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설정된 모형을 평가한 값인 NFI와 NFI를 보완한 지표인 CFI값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값들은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낮으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0.90을 초과하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Measures	χ^2	d.f.	RMSEA	NFI	CFI
Values	313.037	151	0.034	0.932	0.963

다음으로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가 <표 5>에,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뜻한다. 특히 <표 5>의 표준화 추정치는 개별 경로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진로정보인지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가정 내 진로지도가 .472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자아정체감이 .292, 그리고 학교의 진로지도가 .192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진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대화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질 높은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수록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개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을 뜻하며, 그 중에서도 가정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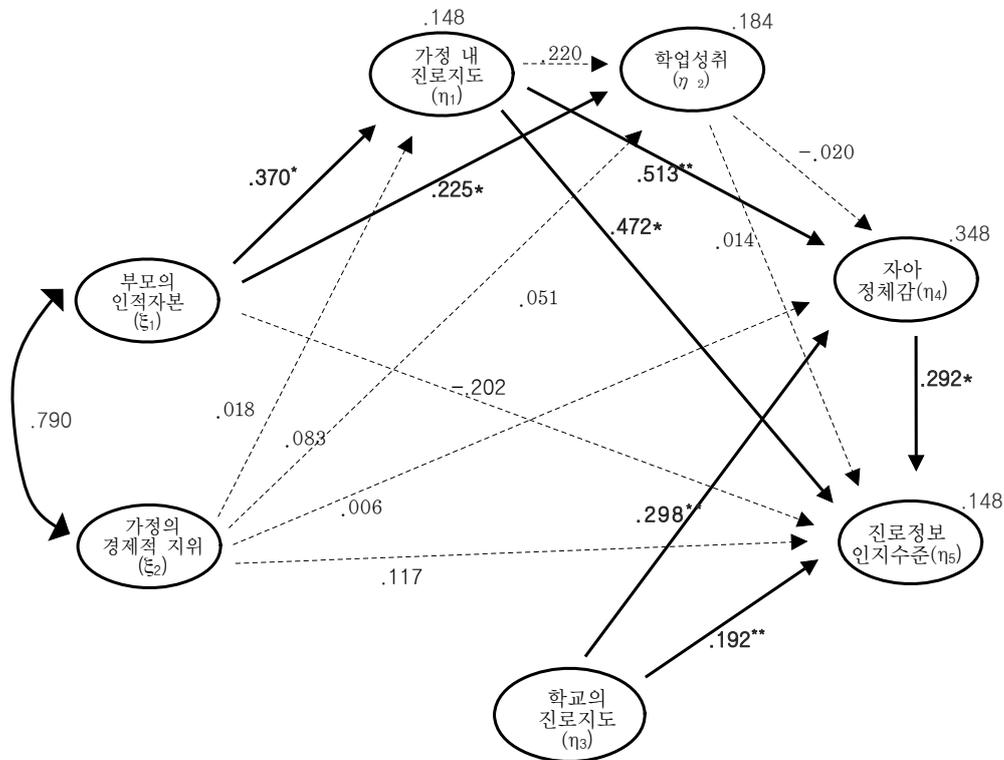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결과

추정변인	효과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부모의 인적자본	부모의 인적자본→가정 내 진로지도	.053 (.027)	.370*
	부모의 인적자본→학업성취	1.668 (.832)	.225*
	부모의 인적자본→진로정보인지수준	-.055 (.036)	-.202
가정의 경제적지위	가정의 경제적지위→가정 내 진로지도	.003 (.029)	.018
	가정의 경제적지위→학업성취	.689 (.837)	.083
	가정의 경제적지위→자아정체감	.002 (.031)	.006
	가정의 경제적지위→진로정보인지수준	.036 (.036)	.117
가정 내 진로지도	가정 내 진로지도→학업성취	11.4 (5.938)	.220
	가정 내 진로지도→자아정체감	1.273 (.490)	.513**
	가정 내 진로지도→진로정보인지수준	.896 (.455)	.472*
학업성취	학업성취→자아정체감	-.001 (.004)	-.020
	학업성취→진로정보인지수준	.001 (.002)	.014
학교의 진로지도	학교의 진로지도→자아정체감	.138 (.034)	.298***
	학교의 진로지도→진로정보인지수준	.068 (.026)	.19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진로정보인지수준	.224 (.099)	.29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489	

()안은 표준오차, *** $p < .001$, ** $p < .01$, * $p < .05$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대화나 활동은 다각도로 진로정보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가정은 그 자체가 중요한 직접적인 정보원(information source)으로 기능한다.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개별화된 진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선배, 친구, 친지, 가족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가족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학교나

지역사회와 같은 공적 영역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적 영역인 가정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부모로부터 양질의 진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들은 진로정보 습득 단계에서부터 소외될 개연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계층에 따라 부모들이 접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정보격차가 자녀들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재권(1998)은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업을 가진 보호자는 자녀들의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진로탐색에 보다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인적자본수준, 즉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가정 내 진로지도에 .370의 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학력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진 부모들이 가정 내 진로지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줌을 뜻한다.



[그림 2] 진로정보인지수준에 대한 구조모형 추정 결과

한편, 가정의 진로지도는 상술한 것처럼 직접적인 정보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로 정보습득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당한 간접효과를 발휘케 한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아정체감을 매개한 간접효과 경로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아정체감은 진로정보인지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이다. 그런데 가정 내 진로지도는 이 같은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관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진로지도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513($p < .001$)의 상당히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가정 내 진로지도가 진로정

보인지수준에 미치는 총효과는 .623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가정환경요인이 직접효과 못지 않은 간접효과를 통해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결과는 문승태·김연희(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양질의 진로지도를 경험하기 힘든 학생들이 진로정보습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진로지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잘못된 진로선택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정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분해

추정변인	효과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부모의 인적자본	부모의 인적자본→가정 내 진로지도	.370		.370
	부모의 인적자본→학업성취	.225	.081	.306
	부모의 인적자본→자아정체감	.000	.184	.184
	부모의 인적자본→진로정보인지수준	-.202	.232	.030
가정의 경제적 지위	가정의 경제적지위→가정 내 진로지도	.018		.018
	가정의 경제적지위→학업성취	.083	.004	.087
	가정의 경제적지위→자아정체감	.006	.008	.014
	가정의 경제적지위→진로정보인지수준	.117	.014	.131
가정 내 진로지도	가정 내 진로지도→학업성취	.220		.220
	가정 내 진로지도→자아정체감	.513	-.004	.509
	가정 내 진로지도→진로정보인지수준	.472	.152	.623
학업성취	학업성취→자아정체감	-.020		-.020
	학업성취→진로정보인지수준	.014	-.006	.008
학교의 진로지도	학교의 진로지도→자아정체감	.298		.298
	학교의 진로지도→진로정보인지수준	.192	.087	.279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진로정보인지수준	.292		.29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489

***p<.001, **p<.01 *p<.05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은 .292(p<.05)의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해 잘 파악하게 되면 그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고, 그 결과 비교적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진로지도(=.192, p<.01)가 진로정보인지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강연, 학과 및 학교안내,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개척에 유용한 정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학교의 진로지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던 바, 이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진로관련정보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정보원(情報原)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진로결정여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요인은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학생들의 진로개발은 대체로 개인과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학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가정 내 진로지도의 효과추정치(.472)가 학교의 진로지도 추정치(.192)보다 2배 이상 높게 도출되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현재 우리의 진로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며,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라기보다는 진학지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교 교육의 목적이 단지 대학진학에만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각자가 지닌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효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개개인이 본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공교육에서 보다 선진화된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그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진로개척이 개인과 가정에 위임되면, 실제로 가정으로부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계층에 의한 학력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소외계층 아이들은 공부로 성공하기도 그리 녹록치 않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노동시장의 여건과 학생의 소질 등을 고려한 양질의 진로정보를 제공받기도 어려울 개연성이 높다. 즉, 소외계층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러한 진로지도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기회를 쉽게 갖기도 어렵고, 또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살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에 접근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학교의 진로지도 역할의 개선과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요인 가운데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학업성취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V. 결론

기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 개개인이 지닌 적성과 소질이 각양각색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고유한 능력은 묻어둔 채 대학입시에만 집중해야 했고, 사회 풍토 또한 공부로 입신양명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처럼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 없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단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무관심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이 같은 현상은 전술한 학력중심의 사회풍토에 의해 조장된 탓이 가장 크며, 그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소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진학지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진로지도를 위해 경주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 결정여부에 학교의 진로지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모의 직업이나 자아정체감 등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학생들의 진로개척과 그에 관한 정보수집에는 학교보다 가정환경의 역할이 더 크고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경우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의 직·간접 경로를 통해 가정의 진로지도, 학업성취, 자아정체감 등에서 체계적으로 열위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극대화시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곳곳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에게 바람직한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임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경찬(1996).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국민일보(2006. 4. 20) “ 미래의 직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5&article_id=0000242507. 2006. 6. 8일 인출.
- 권소희(1996).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소희(1996).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관용(1996). “중학생의 개인 및 가정 특성이 직업적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환·전용석(2005).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35-246..
- 김성환·최바울(2004).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정 분석”.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김원중(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1989). “청소년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환식·류창렬(199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그에 관련된 요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8(2), 102-125.
- 김환식·류창열(199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그에 관한 요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8(2), 102-105.
- 문승태·김연희(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지, 34(2), 49-60.
- 문승태·김연희(2005).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1-16.
- 세계일보(2005. 12. 14) 1학년·06학번 신입생, “고민의 계절...”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35982. 2006. 6. 8일 인출.
- 신재순(1998).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권순·한건환(2002). “청년기의 개인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20.
- 오송남(2003).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 연구 2(1),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국(1999). “중등학생의 진로성숙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중(2003).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의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1986).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 67-90.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지연(2005). “한국 진로교육 전반에 관한 OECD 견해”.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6(1), 1-22.
- 이현림·남혜경(199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요인분석”.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53-82.
- 이현주(200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3), 257-280.
- 임용수(1992).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 모형 : LISREL 모형 탐색”. 한국교육 19, 111-132.
- 전용석·김준영(2003).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49-292.
- 정정은(200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1998). 진로교육. 서울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Gordon, V. N.(1998). Career Decideness Type : A literature review.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4), 386-403.
- Herr, E.L. and S.H. Cramer(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 fifth edition. Addison Wesley Longman, Inc.
- Hodkinson, P. and A.C. Sparkes(1997). Careership: A Sociological theory of career decision making.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8(1), 29-44.
- Schoenfeld, E.(1972). Status and Career Decision: An analysis of the time dimens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13, 496-507.
- Super, D. E.(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Counseling Psychologist 1, 19-23.